

제 128 호

예수 승천 대 축일
(홍보주일)

1975. 5. 11.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 주교단 메세지 □

친애하는 모든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 여러분에게



격동하는 국제 정세는 급기야 양단되었던 월남과 크메르의 공산화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공산 침략의 재물이 된 우방의 비운을 통탄해 마지않는 우리는 특히 반공 투쟁 제1선에 서있던 그곳 천주교회가 오늘 심각한 시련을 겪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형제적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공산 세력에 패배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산세력이 월등하게 강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교묘지기 자유 지역 안에서의 정부의 부정부패와 사회의 부조리로 말미암은 국력의 분열로 국가의 안보능력을 극도로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공산 세력의 위협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살펴 보건대 유사한 결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우리의 자유를 공산 위협에서 수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대오 각성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앙을 가진 국민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반공 정신에 투철하며, 따라서 어떠한 공산세력도 막아낼 수 있는 정의롭고 강력한 정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뜻있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현실적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며 인권 옹호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반공 정신과 불타는 애국심에서 참으로 강력한 국가민족을 형성해 달라고 외치던 성직자들이 혹은 투옥되고 혹은 수사기관에 연행되며 혹은 외국인 선교사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당하는 등, 가지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와 정부의 따뜻한 보호를 받는 국민이 일치 달성하여 폭전에 임박한 공산위협을 물리쳐야할 현실적에서 국가 안보에 해로운 온갖 사회 부조리와 불안을 제거하고 건전한 비판세력인 성직자, 지식인, 언론인들의 투옥, 연행, 추방 등의 희생물 막기 위하여 한국 주교단은 그동안 사제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전개하던 현실 비판과 인권옹호 운동을 주교단이 책임지고 차원을 높여 정부와의 직접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공을 위해 진실로 강력한 정부는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국민의 소망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주교단은 온갖 부정 부패와 각종 인권 유린에 대하여 정부 요서에 직언할 수 있으리라는 바입니다. 이같은 직접 대화를 통하여 정부가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이 정부를 이해하는 강력한 국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강한 국가 건설로 공산 침략을 막아내고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자유 우방과 어깨를 겨누며 인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꿰어준 중대한 사명입니다. 이같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천부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온갖 사회부조리를 제거하는 일에 정부와 국민은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은 정부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동단결이 이루어져야만 반공 투쟁에 승리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이 나라가 때때로 융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신념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5월은 성모성월이요, 1917년 5월 13일에는 성모 마리아께서 파티마에 발현하셔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바치라 부탁하셨습니다. 또 5월 18일은 성신 강림 대축일입니다.

교회의 옛 전통을 따라 우리는 성신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9일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므로 5월10일 토요일부터 18일 성신강림 대축일까지 천국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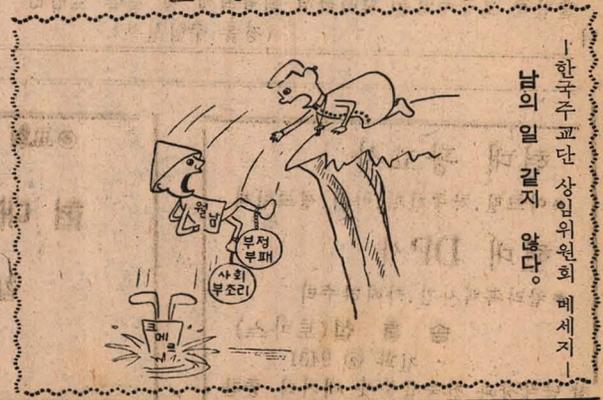
- 1) 채신과 화해의 성년의 정신을 따라 교회의 채신과 국민 상호간의 일치를 위하여,
- 2)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위하여,
- 3)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 4) 월남과 크메르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한 마음으로 9일기도를 바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땅에 성신의 특은이 풍부히 내리고 성모마리아의 따뜻한 손길이 펼쳐짐으로써 공산침략을 모면하고 온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모든 종교인이 자유로이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75. 5. 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 위원회

숲 정 이 산책





출판물 보급 주일

정 승 현 신부

फलक 길을 나오다가 어느 집 외등이 대낮인데도 켜져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들어가서 외등이 켜졌다고 일러 줄까 한참 망서리다가 그냥 돌아선다. 국민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영국 사람들은 낮에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들어가서 꺼준다는 글을 읽은 적이 생각한다. 외등이 켜져있군요 라고 말할 때, 혹시 남의 집 외등이 켜져있진 말진 웬상관이냐는 기분 나쁜 핀잔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쓸데없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을 때 가서 꼭지를 틀어 잠그고 싶을 것이다.

좋은 책들이 참 많이도 쏟아져 나온다. 서점에 가서 책 앞에서 보면 언제 이 좋은 책들을 다 읽어서 내 삶과 피가 되게 한단 말인가? 위압감마저 느낄 지경이다. 이 좋은 책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 서점의 서가만을 장식하고 있다면 대낮에 켜 있는 외등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캄캄한 곳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비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목 말라 하는 사람들에게서 저 흘러넘치는 수돗물을 마시게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책들이 서점에서 떠나 서가에 꽂혀 있다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서가를 장식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책은 읽어야 한다.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안 읽는다고 한다. 특히 교회서적은 더 그렇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재미가 있고 없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일까? 내 생각에는 바로 서원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 재미있는 책들이 참 많이 있다. 책 모양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 사회서적에 비교해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 가격에 있어서도 결코 비싸지 않다.

그렇다면 왜 신자들이 교회 출판물을 읽지 않을까? 교회 출판물을 신자 아닌 일반사람들이 즐겨 애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신자들이 좀 더 교회 출판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던 호된 꾸지람이 생각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시오. 그것들이 밧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 뜯을지도 모릅니다” (마태 7장 6절)

출판물 보급주일을 맞이하여 외달되게 몇 말씀 드립시다. (정승현 주임신부)

이 주일의 미사

(1) 개회식

□ **입당송** 갈릴레아 사람들,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분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모양으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2) 말씀의 전례

□ **총계송** (사도행전 1:1-11 성서 p 265)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였다.

□ **제1독서** ◎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이 오르시도다. 나팔 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올라가시도다.

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 부르라. 주님은 지존하고 지엄하시도다. 온 누리 크으신 임금이시다.◎

□ **제2독서** (에페소 1:17-23 성서 p 438)

하늘 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 오른편에 앉히셨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서 만민을 가르치라, 세말까지 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 **복음** (마태오 28:16-20 성서 p73)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내게 부여 되어 있다.

□ 신자들의 기도

1. 영광스러이 승천하시어/우리들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을 보내 주시어/모든 이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성신의 위로를 충만히 받게 해 주소서.◎주여 우리의...

2. 주여 많은 이의 부정부패 때문에/정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죄를 범하고/부정했고/부패에 참여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어/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회를 구하고/겨레를 구하기 위해 용기와 신념을 주시며/정의구현에 앞장서 위치시는 분들에게도/당신의 특별한 은총을 주소서.◎

3. 교회 출판물 보급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비오니/그들이 맡은 바 사명의 중함을 알아/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게 하여주시며/신자들에게는/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교회출판물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소서. ◎

+주여, 믿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주...◎아멘

(3) 성찬의 전례 □불헌 □성찬식

□ **영성체송** 나는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교회 여러분의 집◎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⑥ 6289

☆교우들의 집☆

영명 T.V 수리센터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출장비 무료

유 원 상(돈브스코)

전주 동부시장동 (전화 ⑥9138)

현대 광고사

*아크릴, 각종간판, 아취, 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 카메라수리

송 흥 섭(토마스)

전화 ⑥ 9431

삼 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네거리 중간

□ 양지쪽 □

□ MASS MEDIA □

홍 보 주 일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에 있어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간 지능이 피조물 가운데서 발견해 낸 신기한 기술의 발명중에서, 자모이신 교회가 특별히 환영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소식과 생각과 뜻을 극히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것이다. 이런 발명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쇄기, 영사기, 라디오, 텔레비 등 그 성질상 개인에게 뿐 아니라 대중과 전체 인간 사회에 그 힘을 미치고 영향을 주는 기계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중 전달 수단"이라 부를 수 있다.

매스 미디어가 옳게만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이익을 성교회는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과연 그것들이 정신적 휴식, 교양의 향상,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이용하여 창조주를 거슬러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실 이것들의 남용으로 인류 사회에 너무나 자주 해독이 초래된다는 것을 교회는 자모적 심정으로 걱정하고 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1963년 12월 4일에 반포한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에서)

1975년도 홍보주일을 맞아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시보 전주지사, 숲정이 편집실에서 몇가지 자료를 제공받아 우리 교구의 홍보에 관한 몇가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 성 바오로 서원 (전화 2-7389) *

성 바오로 서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도서들을 취급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보급된 총 권수는 22,127권이라 한다.

출판사	도서의 특성	74년에 보급된 도서
가톨릭 출판사	전례, 신심, 소년	3,416권
성 바오로 출판사	문학, 교양, 아동 도서	6,566 "
성 분도 출판사	성서학, 사회학,	626 "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C.C.K)	전례, 교리, 경향잡지, 사목	6,377 "
대한 기독교교회	신학, 철학	382 "
대한 성서 공회	성 경	2,537 "
일반 출판사	문 학	915 "
기 타	-	1,308 "

* 가톨릭 시보 전주지사 (전화 2-3498) *

전주 시내에 275부가 보급되고 있다. 3,000여 세대에 12,000여 교부가 살고 있는데 교작 275부가...

지사장 범석구 신부, 주재기자 한상갑, 보급 및 수금 책임 김현자, 양희석씨는 가톨릭시보 발전을 위한 좋은 자료와 기사, 구독자 배가에 교형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한다고 한다.

* 숲정이 (전화 2-3498) *

6만여 전주교구 교우들을 위하여 현재 매주 8,000부를 발행한다. 31개 본당 가운데 25개본당이 참여하는 숲정이의 전망은 꽤 좋으나, 숲정이 대금 체납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 한다. (제납총액 563,855원, 숲정이 122호 참조)

요십이 (94) 김병오



* 꼭 읽어야 할 정기 간행물 *

- 경향잡지(월간).....200원
- 가톨릭시보(주간)월150 "
- 사목(격월간).....350 "
- 소년(월간).....200 "
- 전망(계간).....400 "

*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 5893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묘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 6544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 조제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육교묘 중앙 시장동
 (전화 ☎ 4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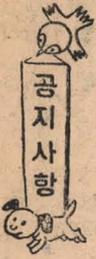
※ 집단장 침부. 문의 환영 ※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흑판등>

전화 ☎ 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전주 교구 성신 강림절 9일 기도 (전주교구 제 75-13호 공문, 75년 5월 6일자 참조)
 - 기간: 5월 12일(월)~20일(화)
 - 순서: ① 성체 헌시 (성체노래, 분향) ② 성경봉독
 - 강론(주제: 인간 존엄성, 형제애, 인간 공동체-상호 연대성, 사회정의, 교회의 일치)
 - 신자들의 기도 ⑤ 성체 강부 ⑥ 로사리오의 기도 ⑦ 평화의 기도 (성년 기도문)
 - 맺음사가 (성모께 대한 성가)
- 본당 순회 교육: (5월 11일 오전 10시-오후 4시) 여산, 삼례 성당
- 지정할 신부 한국 체류기간 3개월 연장되다.
- 불법 연행되었던 청주 이한구 신부님 본당에 돌아오다.
- 신부 수녀 연수회: 5월14일 오전 10시-15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노동문제 연수회)
- 전교 수녀, 회장 연수회: 5월12일 오후 2시-14일 오전 10시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 사도회 임원 연수회 연기: 추후 연락 하겠음
- 제4지구 각 본당 중·고 회장단 회의: 75. 5. 11일 오후 2시, 전동성당 사제관에서.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사도 회장 김영진

- 옥외 행사: 5, 11일 9시 30분 출발(간중리공소) 각 브레시디움 행동 단원, 협조 단원은 전원 성당 운동장에 집합 바람 (현지에서 11시 미사 있음)
- 견진성사 교리: 12일부터 오후 8시 견진자는 사무실에 등록바람, (견진: 18일)
- 고교생 성가연습: 매주 수요일 7, 30분부터
- 미사시간 변경: <월·수> 오전 6시 <화·목> 오후 7시 30분 <금> 오전 10시 <토> 오후 6시 (주일 아동미사: 오후 4시 30분) ※주일 미사는 변경 없음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석미사후
- 부인회, 애령회 간부 월례회·다음주
-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 복자성당 교우 잡실 5십만원 약속 기증
 - 중앙 총 신입: 483,241 현금: 53,360원
 - 전동 금주 수입: 53,800원, 서학동성당: 17,200원 남노: 2,500원, 송경옥, 이복배, 이명옥, 김갑인: 각 3,000원. 최금년 박미카엘라: 각 2,000원. 이명자. 강금안: 각 5,000원, 기타: 6,000원 주일학교 어린이: 940원 한글라라: 단원 ※주제: 163,800원, 누계: 2,808,110원
 - 신축성미 <주제> 2말 5되 누계: 256말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 신자, 예비신자 특별 교리: 매주 토 오후 8시
- 신용 조합 월례회: 다음주 연기 <야외미사 관제로>
- 본당 야외 미사 및 야유회: 오늘 10시 <건지산>
- 가정방문: (5, 7일) 팔복동, 송천동, 금암동, 덕진동
- 서 말가리다 할머니 초 봉헌금 1,300원 기증 감사합니다.
- 애령회 성미 및 성금: <성미> 2홉, <성금> 140원, 누계: 성금: 3,640원 성미: 11되 2홉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L.M 옥외 행사: 공석 미사 후 단원, 협조 단원은 모두 참석 바람 (도시락 지참)
- 오늘은 홍보 주일: 경향잡지, 시보를 구독합니다.
- 오늘 성우회는 L.M 옥외 행사와 같이 함
- ◎ 지난 주 성미: 2말 2되 누계: 385.7되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사도회 확대회의에서 본당 수리하기로 함(대문)
- 애령회를 위한 회사: 박 누까<장춘> 5,000원 회사
- 상관 사도회: 오늘 10시
- L.M 옥외 행사: 상관
- 예비자 교리: 화, 수 금 오후 8시 30분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현재

- 예수 승천 야외 미사: 12시, 구이 저수지
- 자모회 월례회: 다음주로 연기
- 성 가정회: 야외 미사 후(구이 저수지)
- 예비자 교리 안내: <주일> 10시 미사후 저녁 8시 평일 <수> 저녁 8시 <학생> 토 5시 미사후
- 신용 조합 월례회: 14일 밤 8시 40분 참석자 기념품 증정
- ◎ 61주년 성미 11말(130세대) 누계 5가마 5말
- 견진 성사 일자: 5월 24일. 신청서 사무실에서 교부 교리 시간...19~23일 매일 밤 8시

금주의 숲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이 창수(바오로) 남문열 시보당 시계점 ② 8 1 8 8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부신태인음정	승천 야외 미사	2,725원	제 3 지구	주현동 황인동	L.M 각 브레시디움 임원 회합	35,370원
		사도회 임시 총회	23,010원			견진 성사 준비 교리	40,095원
		승천 야외 미사	5,125원			주일 학교에 어린이들 보냄시다	3,260원
		성심 강림 1일 피정	14,310원	제 4 지구	양동	아치에스 행사	52,881원
제 2 지구	대문울명동합	승천 주일 4개 본당 옥외 행사		제 5 지구	원주계안창	신용조합 월례회	19,865원
		"				신자 및 예비자 교리	10,820원
		"				L.M 옥외 행사	16,330원
		"				사도회 확대 회의	12,570원
		"				예수 승천 야외 미사	53,380원
제 3 지구	고금여	성신 강림 세례 대상자 교리	2,615원			청년회 춘계소풍	21,080원
		승천 야외미사 및 교부 교역 정리	11,000원			경향잡지, 가톨릭시보 구독을!	4,390원
		교구 순회 교육	3,000원			교구 순회 교육	